

법무부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18일 오후 3시, 제3회 월간업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

6월 18일(목) 15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6월 월간업무회의가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TV”)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생중계를 시작한 뒤 어느덧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며 활발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부서별 주요 정책 등을 담은 슬로건을 테이블에 배치하여 시청자가 각 부서의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 공개 확대 추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시행 등 법무부의 주요 업무 내용을 다루고,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토의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회의 과정을 전하러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법무부의 진심어린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최태은	(02-2110-3035)
		담당자	서기관	이상우	(02-2110-3749)